

케이뱅크, IPO 본궤도… 흥행 여부에 최우형號 연임도 결정

총 6000만주, 희망가 상단 9500원
시장 눈높이 반영 공모가 20% 낮춰
취임 첫 해 사상최대 순이익 기록 등
최 행장, IPO 성공 땀 연임 가능성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코스피 시장 상장을 본격 추진한다. 안정적 기업공개(IPO) 추진과 창사이래 최대실적이란 성과아래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연임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일 금융위원회에 코스피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총 공모주식수는 6000만주로, 주당 공모희망가 범위는 8300~9500원이다. 공모 희망가 상단기준 상장후 시간총액은 총 4조원 규모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3년에 이어 2024년 8월 증권신고서 제출까지 마친 바 있다. 다만 당시 케이뱅크는 공모 희망가 범위를 9500~1만2000원으로 정하고, 상장후 시가총액을 5조3000억원으로 기대했지만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한국의 카카오뱅크와 일본의 인터넷은행 라쿠텐뱅크를 비교회사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

로 선정, 합리적인 공모가를 산정했다”며 “시장의 눈높이를 반영해 당초 공모 시점 대비 약 20% 낮췄다”고 말했다.

◆ 외형 확장·건전성 강화

케이뱅크는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소상공인(SME) 시장 진출 ▲기술(Tech) 차별성 강화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구축 ▲디지털자산 등 신사업 진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6년 설립 후 2017년 4월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총자산 33조2692억원, 자기자본 2조 192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대면 아파



케이뱅크 사옥.

/케이뱅크

트담보대출과 비대면 개인사업자 보증대출,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잇달아 출시하며 현재 고객 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수신잔액은 30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하고, 여신잔액은 17조9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0.3% 증가했다. 특히 여신 중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11월말 기준 2조18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500억원) 대비 약 90% 급증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3분기 연체율은 0.56%로 세 분기 연속 하락해 2022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5.01%로 규제 기준을 상회했고, 이자마진(NIM)은 1.38%로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

◆ IPO 성과와 최 행장 연임 관심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의 연임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행장은 지난해 12월 말 공식 임기가 완료됐지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행장 후보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됐다.

IPO의 성공여부에 따라 연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

을 실시하고, 20일과 23일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IPO 흥행 여부가 최 행장의 연임 판단에 직접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행장 연임사례가 없다. 심성훈 초대 행장은 첫 임기 3년 만료 후 경영 안정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6개월간 유임됐고, 2대 이문환 행장은 취임 10개월 만에 사퇴했다. 3대 서호정 행장 역시 단임 후 물러났다.

일각에서는 심성훈 초대 행장이 유상증자 지연 등을 이유로 유임됐던 사례와, IPO를 앞두고 최 행장이 유임된 상황을 유사하게 보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체가 필요하다면 규제·내부통제 등에 명확한 사유가 있거나, 대주주와 이사회가 이미 포스트 상장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현 경영진이 이에 대한 신뢰를 못 주는 경우 등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 행장이 취임 첫 해인 2024년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케이뱅크 출범 이후 첫 ‘연임 행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신한금융 ‘AX 혁신리더’ 100명 선발… AI전환 가속

현업 실무자 중심… 전사적 AI 실행
전 직원 AI 역량강화 프로그램 병행

신한금융그룹이 신한금융 본사에서 인공지능(AI) 전환(AI Transformation·AX)을 위한 그룹 핵심 인재인 ‘AX 혁신리더’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업 중심의 전사적 AX 실행 단계로 전환한다.

신한금융은 AX의 성패가 현업 주도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주요 자회사에서 현업 실무자 중심으로 ‘AX 혁신리더’ 10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AI·데이터 기반 업무 혁신 과제 발굴 ▲반복·비효율 업무의 AX 관점 재설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주도한다.

‘AX 혁신리더’들은 먼저 ▲현업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AX 혁신리더들과 토크콘서트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서 바로 활용 가능한 AI Agent 기획·설계·개발에 대한 기본 교육 ▲각사의 업무 환경에 맞춘 심화 교육을 이수한다. 이후 사내 생성형 AI와 비정형 데이터 플랫폼 등을 활용해 업무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Agent)를 직접 설

계·구현함으로써 AX 실행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AX를 전 직원의 일상적인 업무 방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AX 혁신리더’를 지속적으로 확대·육성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해 AX 내재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각 그룹사에서 선발된 ‘AX 혁신리더’ 100명이 참석해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경영진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실행 중심의 AX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옥동 회장은 14일 “신한금융은 지난해 경영진 대상 AI 교육을 통해 AX에 대한 인식과 가능성을 점검했다면, 올해는 현장에서 전 직원이 AI를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100명의 ‘AX 혁신리더’가 AI Agent 활용 능력을 극대화해 그룹 전반의 AX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지난달 은행대출 가계·기업 동반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지난해 12월 은행대출이 가계와 기업에서 동시에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호황 기대 속 1월 들어 4693선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은행대출은 가계대출이 11월 +2조1000억원에서 12월 -2조2000억원으로,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6조2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각각 감소 전환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7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5000억원을 기록해 동반 감소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한은은 연말 계절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대기업대출은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한도대출 일시 상환 등으로 +2조 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돌아섰다. 중소기업대출도 은행권 자본비율 관리에 따른 대출영업 축소와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으로 +3조8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도 위축됐다. 회사채 순발행은 11월 +4000억원에서 12월 -7000억원으로 순상환 전환했다. CP·단기사채 순발행 역시 -2조 4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자금 흐름은 ‘대출 감소·연말 자금 이동’이 동시에 나타났다. 12월 은행 수신은 +7조7000억원으로 증가세는 유지했지만 전월(+36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수시입찰식예금은 기업자금의 일시예치와 가계 상여금 유입 등으로 +39조 3000억원 급증한 반면, 정기예금은 -31조9000억원 감소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GS건설, 한강변 정비 ‘성수1지구’ 수주전

‘비욘드 성수’ 차별화 전략

GS건설이 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성수1지구 수주에 나선다.

GS건설은 지난 12월 도시정비사업 실임직원 50여명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성수1지구) 현장에 모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고 14일 밝혔다.

GS건설은 성수1지구 수주를 위해 차별화 전략인 ‘비욘드 성수(Beyond Seongsu·성수, 그 이상의 가치)’를 선언했다. 획일화된 하이엔드 브랜드 경

쟁을 넘어 성수1지구의 독보적인 입지와 상징성에 걸맞은 설계와 기술력, 품질 경쟁력 등을 앞세워 ‘대체 불가능한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전을 단순한 사업 참여가 아닌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그간 축적해온 성과를 시장에 입증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특히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내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주택 사업 전반에서 신뢰 회복에 주력해온 만큼 이를 성수1지구에 집약적으로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카드 ‘하이브리드 결제’ 특허출원

‘스테이블코인’ 우선 결제

KB국민카드는 하이브리드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카드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활용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허는 고객이 보유한 신용카드에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주소를 연동해 별도의 카드 추가 발급 없이 디지털자산과 신용카드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결제 시 전자지갑에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잔액이 우선 적용되며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

는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 처리된다.

기술은 기존 카드 결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디지털자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상의 불편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객이 추가 카드를 발급할 필요 없이, 기존 카드 결제 경험과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향후 제도적 환경과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방향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